

포럼-여성리더십

주제발표자 : 이기복 교수

사 회 자 : 조길순 사모

토 론 자 : 참석자 중

1. 발제

1. 하나님은 남성이신가?

2. 예수님은 왜 남성이셨을까?

3. 돕는 배필의 의미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2:18)

4. 창조의 순서 및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여성

5. 창3:16절에 나타난 저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6. 죄를 세상에 끌어들이는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인가?

(창3:5, 딤후전2:13-15, 롬5:12-15)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후전2:13-15)

7.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되는가? (딤후전1:3-11) (딤후전2:8-)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딤후전2:11-12)

,,,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를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고전14:34-)

<생각할 문제>

- 1) ‘돕는 배필’의 의미는 무엇인가 (helper, helpmeet, 'ezer)
- 2) 이브는 아담과 동등한 신분으로 창조되었나
- 3) ‘돕는자’라는 개념에 여성 열등함이 전혀 없는 것일까

- 4)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 5)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되는가
- 6) 여성 사역자의 교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 7) 진정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및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2. 결론

1. 예수님의 태도

2. 성경해석의 문제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찌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위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국함애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딤후2)’

‘뱀이 그 간계로 아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11:3-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일 만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고전 11:3-16)’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딤후2:4-)’

3. 타락된 인간관계의 회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3)

4. 엠5:21-33과 잠31:10-31을 묵상해 봅시다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24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28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8-30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32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상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